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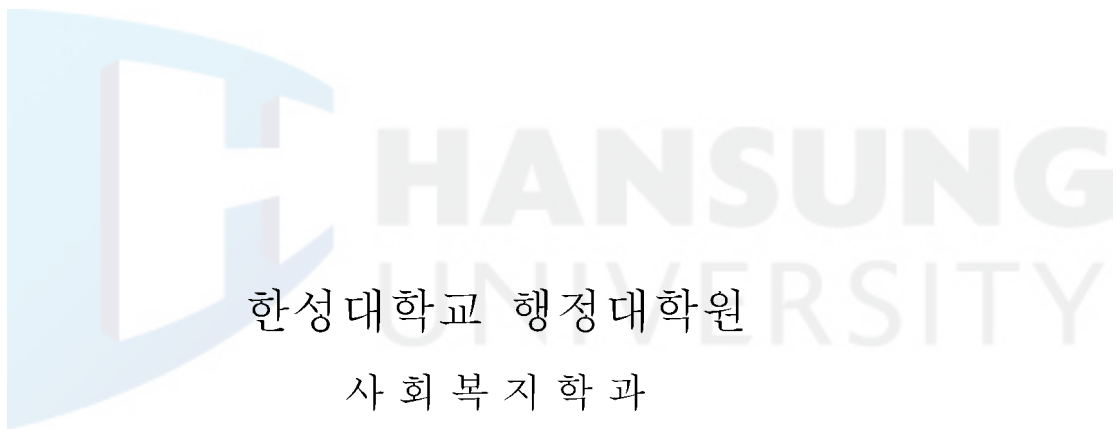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2012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양 성 순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atterns of the Elderly Handicappe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on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실 버 산 업 전 공

양 성 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atterns of the Elderly Handicappe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on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양 성 순

양성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버산업전공

양 성 순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러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개선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과 장애인들의 각 요인들이 거주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부랑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보다 생활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역시 비교적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엔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보다 전반적으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통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 시설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장애인 생활만족도,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 특성, 장애인 시설 요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개념	4
제 2 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	5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 노숙인시설	5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6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7
제 3 절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8
1. 생활만족의 개념	8
2.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8
1)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자의 생활만족 관련 선행연구	8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9
3)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11
4) 무료요양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13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13
제 3 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15
제 3 장 연구방법	18
제 1 절 조사의 설계	18

1. 분석대상의 선정	18
2. 조사대상의 집단별 구분	19
1) 장애인복지시설	20
2) 정신요양시설	20
3) 노인복지시설	20
4) 부랑인시설	20
제 2 절 분석방법	21

제 4 장 연 구 결 과 22

제 1 절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22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22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수	22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유형	22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성별에 따른 장애인 현황	24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연령	25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학력	26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생활특성	27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유무	27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활동분야에서의 지위	28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수	30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가족의 가구원수	31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직업관련 분석결과	33
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가활동 관련 분석결과	37
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관련 분석결과	38
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 관련 분석결과	39
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주거관련 분석결과	43
1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경제상태 인식	45
1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47

제 2 절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도 분석결과	49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정성적인 생활만족	49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족 관계 만족도	49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친구 만족도	50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살고 있는 집 만족도	51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건강상태 만족	51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결혼생활 만족도	53
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전반적인 삶 만족도	54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정량적인 생활만족	55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한달 수입 만족	55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 직장 만족도	56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여가활동 만족도	57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	58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60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0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61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7

표 목 차

[표 2-1]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구분	4
[표 3-1]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	18
[표 4-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수	22
[표 4-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유형	23
[표 4-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성별의 구분에 따른 장애인 현황	24
[표 4-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연령에 따른 장애인 현황	25
[표 4-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학력의 구분에 따른 장애인 현황	26
[표 4-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유무	27
[표 4-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활동분야에서의 지위	29
[표 4-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수	30
[표 4-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구원수	31
[표 4-10] 각 집단별 가족 내 장애인 수	32
[표 4-1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장애인의 직장	33
[표 4-1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장애인의 직장 내 지위	34
[표 4-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	35
[표 4-1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	36
[표 4-15]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휴일 여가활동 유형	37
[표 4-1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혼인상태	38
[표 4-1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당시 장애보유 여부	39
[표 4-1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주된 애로사항	40
[표 4-1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필요서비스	42
[표 4-2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	43
[표 4-2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살고 싶은 주거유형	44
[표 4-2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주관적 장애인 경제상태 인식	45
[표 4-2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47
[표 4-2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49

[표 4-2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친구 만족도	50
[표 4-2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살고 있는 집 만족도	51
[표 4-2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52
[표 4-2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53
[표 4-2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	55
[표 4-3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한달 수입 만족도	56
[표 4-3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 직장 만족도	57
[표 4-3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여가활동 만족도	58
[표 4-3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	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핵가족화의 심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보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 장애인, 거동불편장애인, 치매장애인 등의 장기요양 보호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장애인인구의 건강관리 및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갖춘 장애인전용 시설의 확충이라는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과거 어느 때 보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역시 높아짐에 따라 여가에 대한 개념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이 장애인계층으로 진입하는 계층들은 연금이나 저축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 사람들, 또는 교육수준이 높아 퇴직 후에도 자신이 재능을 계속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노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인구 층이 두텁고 다양한 만큼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욕구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장애인이라는 단일한 인구 층으로 분류하여 단순히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즉 젊은 장애인, 연로한 장애인, 건강한 장애인과 건강치 못한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중산층 이상 장애인 등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이처럼 다양 해 지는 것은 사회가 점차 분화되어 가는 현상이 장애인층에게도 그대로 투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확장된

노년기에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숙제로 다가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이용여부 및 각 세부 구성요소들이 종속변수인 장애인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 및 장애인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점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여러 종류와 이용여부, 이용형태 등이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전반의 관련 요소의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2장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성공적인 노화라는 측면에서의 생활만족도 측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장애인복지 활성화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만족도 증대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보도록 한다. 이어질 부분은 복지시설의 유형별 종류나 이용여부, 이용형태 등이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논문을 요약 정리하는 형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 아래, 우선,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정리해보고, 종속변수인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로 하는 각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각 선행연구의 연구가설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구성요소와 정의, 표본집단의 규모와 특성,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측정수단 및 분석방법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신뢰도와 연구결과로서 유의확률을 파악함으로써,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개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용),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보호의 대상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 요보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한다.

시설보호 방법은 시설보호 대상자가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혹은 평생을 생활하는 방식이다.

[표 2-1]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구분

시설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제 2 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 노숙인시설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숙인 시설이란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이 입소 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체적으로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치료적 요소를 포함시킨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무료 혹은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증진·교양·오락·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와 같은 여가시설 등이 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노인전문보호기관 등이 있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을 뜻한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뜻한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 있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제 3 절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1. 생활만족의 개념

생활만족이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Lehmen,1998) 정의하며 개인이 느끼는 다양성만큼이나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생활만족이 다를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 또는 주관적 안녕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 그가 가장 경험하고 싶어하는 수준과 현재의 생활조건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Campbell,1976) 되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정도(Meadow,1992)이며, 지체장애여성들의 경우 삶의 만족($r=.140$ $p<.05$) 자아개념($r=.282$ $p<.01$) 삶의 활력감($r=.331$ $p<.01$)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고병기 2006).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의식주영역(평균3.40), 행복감(평균3.32), 대인관계(평균3.23)순으로 만족스러워하였다(소홍문, 2006)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 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직업,소득(강창욱 이준우,2006, 오혜경,2002, 백은령,2005)으로 연구하였다

2.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무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른 생활만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자의 생활만족 관련 선행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 구본용(2005), 박용환(2009), 신춘희(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구본용(2005)의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가운데, 의료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물리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중 시설지역이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용환(2009)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시설환경 서비스, 의료서비스,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미성을 보였으며, 이어서 시설 내 친구, 종교, 일상생활서비스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가족 친구 교류는, 입소 전 직업과 기타서비스로 이 두 변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춘희(2009) 연구에서는 노인 중 65세 이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남녀 대상으로 전체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한 결과, 건강상태에 만족도(베타값=0.389, $p<.001$)만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현 삶의 질 평가 변수는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및 전체 삶의 질 영역에 전체 독립변수 중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전문병원 입원 노인의 삶의 질에는 연령과, 현 건강상태, 식사, 의복, 침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정수(2007), 신성재(2006), 이지연(2003), 임은실(2003), 임진주(2007) 등의 연구가 있다.

김정수(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참여 유형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삶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삶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띄지 않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와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의 생활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신성재(2006)의 연구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만족도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 인적자원만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연(2006)의 연구는 . 독립변수인 노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범주와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질 범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은실(2003) 연구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 변수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IADL, ADL, 수면상태, 체력상태와 배우자지지, 여가활동 변수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진주(2007) 연구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 요인 중에 자존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두 요소가 노인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생활만족도에 사회활동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생활만족도에 가정환경 요인이 주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 가족지지, 경제수준 모두 가정환경이 노인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생활만족도에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주변 생활환경과 노인에 대한 관심 항목은 사회적지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관계, 가족지지, 경제수준 세 가지 항목 모두 가정환경 요인이 노인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시도(2006), 김영미(2009), 박지혜(2006), 변용만(2007),오덕만(2006) 등의 연구가 있다.

김시도(2006)의 연구는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으며, 이어서 사회적 지지 특성 변수 중 하나인 친한 친구 수, 직원 및 서비스관련 요인 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영미(2009)의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건강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운동능력, 자기돌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생활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자기개발형, 가족 중심형, 사회단체형,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취미문화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2006)의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부 변수 중 나이,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 노인의 경제력이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종교, 교육수준이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주 부양자의 경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관련 요인에 따른 노인의 생

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부 변수 중 입소결정, 입소의향이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하지만 입소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요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부 변수 중 가족의 지지, 가족관계가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시설 외 친구의 지지, 시설 내부의 친구의 수가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관련 요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부 변수 중 시설만족이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입소비용관련 방식이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설구분과 입소비용 부담방식은 가장 통계적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용만(2008)의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기능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질환 갯수가 로 가장 큰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으며, 가족유무와 입소기간이, 성별이 기능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요양서비스만족도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기능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요양서비스만족도가 사회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학력과 가족 유무가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서비스만족도 변수 중에는 봉사자 가족만족도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주생활만족도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덕만(2006)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유료노인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 독립변수 중 친구가 ,사회적지지 - 시설내 친구가, 사회적 지지 - 자녀, 사회적 지지 - 시설 외 전문가, 사회적 지지 - 자녀의 변수가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무료요양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무료요양시설입주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미영(2006), 지은주(2009), 김연경(2008) 등의 연구가 있다.

박미영(2008) 연구에서는 무료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 가족관계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어서 직원관계가 나타나 이 역시 노인 생활만족도와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은주(2009) 연구는 무료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관련요인 중 침실의 난방만족도와 침실의 침구류 만족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개인 요인의 연령, 건강상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요인과 사회적 관계요인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김연경(2008)의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 우선, 무료 유료 전체 시설의 경우, 독립변수인 건강상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충분한 시설과 환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 무료 복지 시설의 경우, 독립변수인 건강상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충분한 시설과 환경, 직원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 자녀의 무관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문희자(2009), 박숙자(2007), 박종채(2007), 이나영(2009), 이종민(2008), 정수영(2005), 최정민(2009), 황선애(2006)등의 연구가 있다.

문희자(2009)의 연구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대학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레크리에이션 참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 분석 결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에 따른 정신건강($M=2.18$), 비참여 정신건강($M=2.68$)으로 참여집단의 정신건강이 비참여 집단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참여를 따른 생활만족도($M=4.05$), 비참여 생활만족도 ($M=3.45$)로 참여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비참여 집단의 생활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박숙자(2007)의 연구는 독립변수인 노인들의 여가활동수준이 종속변수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개발 가족중심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자기개발 여가활동 하위 변인이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박종채(2007) 연구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여가시설 미 이용자 노인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이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형태가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기간이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형태가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나영(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여가참여정도 변수 가운데 참여횟수와 참여 만족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종민(2008)의 연구는 독립변수인 노인의 건강교실 참여가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변수

중 참가기간이, 삶 유익성이, 참여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운동빈도는, 운동기간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수영(2007)의 연구는 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여부가,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정민(2009) 연구는 임파워먼트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확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기긍정, 문제해결능력, 적극적 태도도 모두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의 유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황선애(2006) 연구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건강상태 요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월수입이 생활만족도와 정의 유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연령, 교육정도, 동거상태, 이용시설 등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형태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논문들을 정리 요약 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정도를 유의확률 값으로 알아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보이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면 결론에서는 위에서 알아본 주제 관련 논문들을 낱알의 별개 개념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에 또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논문의 주제명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관련복지시설, 노인주거관련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각 논문

의 디멘전 구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각 디멘전의 유의확률 값은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차이와 그 정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을 무료복지시설과 유료복지시설로 양분하여, 그것들의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디멘전 별로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생활만족도 및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노인복지시설 형태별로 나타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고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나영(2009),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논문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참여형태 중 건강진흥형이, 참여정도 변수의 하위변수인 참여기간과 참여 만족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황선애(200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논문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배우자 유무, 월수입변수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종채(2007),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 과천시를 중심으로』의 논문에서는 노인여가 시설 이용여부와 이용동기가, 이용형태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기간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의 종합 정리를 해본 결과, 우선 노인의 삶의 질 부분을 살펴보면, 윤선이(2003),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삼척시 노인들을 대상으로』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연령, 주거환경의 유의확률이 노인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띄지만, 여가활동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용무(2009),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용인시

사례로』에서는 여가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윤기운(2008),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확률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수준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나타내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배우자유무와 가족관계가, 건강상태와 외출정도가 나타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김영미(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드러났고, 송은(2006),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에서는 경제상태 변수, 다음이 여가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여가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의 설계

1.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장애인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식조사는 장애인생활만족도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3-1]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또는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또는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또는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또는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전체 장애인 집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이며, 내부기관 장애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이고, 발달장애에 속하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이며,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은 정신장애(우울, 정신분열 등)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전체 7000명 장애인을 그들이 가진 핵심적인 장애를 중심으로 신체적 장애인 5849명과 83.6%와 정신적 장애인 1151명 16.4%로 대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장애인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서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를 가진 3590명 51.3%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2259명 32.3%, 발달장애인 783명 11.1%와 정신장애인 368명 5.3%로 중분류하였다. 다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을 소분류할 경우 지체장애인은 885명 12.6%, 뇌병변장애인은 711명 10.2%, 시각장애인은 735명 10.5%, 청각장애인은 728명 10.4%, 언어장애인은 406명 5.8%, 안면장애인은 125명 1.8%, 신장장애인은 433명 6.2%, 심장장애인은 428명 6.1%, 간장애인은 261명 3.7%, 호흡기장애인은 404명 5.8%, 장루/요루장애인은 334명 4.8%, 간질장애인은 399명 5.7%, 지적장애인은 405명 5.7%, 자폐성장애인은 378명 5.4%, 정신장애인은 368명 5.3%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안면 장애인이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의 집단별 구분

본 연구는 표본 집단으로 설정된 7000명의 장애인 집단을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의 전체 4개 시설에 대한 이용집단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인 장애인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따라서 이들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1543명 22.0%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예방, 장애극복, 사회복귀 등과 같은 주로 의료서비스로 구성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정신요양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은 1867명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조사대상자가 2047명 26.7%로 시설 이용에 따른 집단 구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4)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부랑인시설은 노숙인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본 연구에 있어서 부랑인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조사대상자는 1543명 2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제 2 절 분석방법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된 각 집단별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현황, 인식, 인지정도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을 대표하는 공통된 인식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명목척도에 관하여 교차분석(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등간척도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차이 분석인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의 결과 도출된 통계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의수준 .05 미만의 유의확률이 도출된 경우 통계결과가 유의미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9.0 win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조사의 대상자인 전체 장애인 집단 7,000명을 유형분석을 통해 구분하고 본 연구는 이들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형 1을 부랑인 시설, 유형2를 노인복지시설, 유형3을 정신요양시설, 유형4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구분 하였으며 다음은 각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수, 학력, 장애유형, 성별 등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수

[표 4-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수

집단 구분(군집)	부랑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수 (N)	1,543 명	2,047 명	1,867 명	1,543 명

결과에 의하면, 부랑인 시설에 속하는 장애인 수는 1543명 22.0%,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는 장애인은 2047명 29.3%, 정신요양시설은 1867명 26.7%, 장애인 복지시설은 1543명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유형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장애유형 중분류에 따른 장애인수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749명 48.5%, 내부기

관 장애를 가진 장애인 563명 36.5%,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 109명 7.1%,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 122명 7.9%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외부신체 기능장애 유형이 1082명 52.9%, 내부기관 장애 유형이 844명 41.2%, 발달장애 유형이 73명 3.6%, 정신장애 유형이 48명 2.3%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외부신체기능 장애 유형이 94명 50.0%, 내부기관 장애 유형이 409명 21.9%, 발달장애 유형이 371명 19.9%, 정신장애 유형이 153명 8.2%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외부신체기능 장애 유형이 825명 53.5%, 내부기관 장애 유형이 44명 28.7%, 발달장애 유형이 230명 14.9%, 정신장애 유형이 45명 2.9%로 나타났다.

[표 4-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유형

구 분		장애유형				전 체
		외부신체 기능장애	내부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부랑인시 설	빈 도	749	563	109	122	1543
	비 율	48.5%	36.5%	7.1%	7.9%	100.0 %
노인복지 시설	빈 도	1082	844	73	48	2047
	비 율	52.9%	41.2%	3.6%	2.3%	100.0 %
정신요양 시설	빈 도	934	409	371	153	1867
	비 율	50.0%	21.9%	19.9%	8.2%	100.0 %
장애인복 지시설	빈 도	825	443	230	45	1543
	비 율	53.5%	28.7%	14.9%	2.9%	100.0 %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507.941)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장애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에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랑인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장애의 유형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성별에 따른 장애인 현황

각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구분된 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표 4-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성별의 구분에 따른 장애인 현황

구 분		성 별		전 체
		남 성	여 성	
부랑인 시설	빈도	1288	759	1543
	비율	62.9%	37.1%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1165	702	2047
	비율	62.4%	37.6%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1038	505	1867
	비율	67.3%	32.7%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870	673	1543
	비율	56.4%	43.6%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39.577)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결과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남성이 1288명 62.9%로 상대적으로 다수였으며, 여성의 경우 759명 37.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남성이 1165명 62.4%, 여성이 702명 37.6%, 정신요양시설의 남성이 1038명 67.3%, 여성이 505명 32.7%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남성이 870명 56.4%, 여성이 673명 43.6%로 모든 집단별 구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

적으로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과 성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연령

[표 4-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연령에 따른 장애인 현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55.38	16.970	.432	99.961	.000
노인복지시설	2047	56.57	16.110	.356		
정신요양시설	1867	49.18	22.197	.514		
장애인 시설	1543	47.05	21.824	.556		
합 계	7000	52.24	19.792	.237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연령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부랑인 시설의 경우 평균연령이 55.38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연령 평균이 56.57세로 가장 높았고 정신요양시설의 평균 연령이 49.18세,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47.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분석의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F값이 99.961,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평균값이 집단들의 공통된 특성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학력

[표 4-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학력의 구분에 따른 장애인 현황

구 분		학 력								전 체
		미취학 (7세미만)	무학 (7세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	
부랑인 시설	빈도	10	243	492	283	383	42	82	8	1543
	비율	0.6%	15.7%	31.9%	18.3%	24.8%	2.7%	5.3%	0.5%	100.0%
노인복 지 시설	빈도	13	244	701	361	525	65	128	10	2047
	비율	0.6%	11.9%	34.2%	17.6%	25.6%	3.2%	6.3%	0.5%	100.0%
정신요 양 시설	빈도	27	286	630	316	447	62	90	9	1867
	비율	1.4%	15.3%	33.7%	16.9%	23.9%	3.3%	4.8%	0.5%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47	119	398	250	418	82	193	35	1543
	비율	3.0%	7.7%	25.8%	16.2%	27.1%	5.3%	12.5%	2.3%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274.109)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의 학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랑인 시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492명 31.9%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학력자가 24.8%로 뒤를 이었고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283명 18.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자가 701명 34.2%, 고등학교 학력자가 25.6%, 중학교 학력자가 361명 17.6%로 가장 많은 3개의 학력 구분에 속하였다. 정신요양시설에 있어서도 역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가장 많은 630명 33.7%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자가 447명 23.9%, 중학교 학력자가 316명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타 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418명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398명 25.8%,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250명 16.2%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구분과 학력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생활만족도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및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생활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유무

[표 4-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유무

구 분		결 혼 유 무						전 체
		비해당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부랑인 시설	빈도	56	275	676	269	208	59	1543
	비율	3.6%	17.8%	43.8%	17.4%	13.5%	3.8%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61	204	1383	282	116	1	2047
	비율	3.0%	10.0%	67.6%	13.8%	5.7%	0.0%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263	397	801	237	146	23	1867
	비율	14.1%	21.3%	42.9%	12.7%	7.8%	1.2%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229	248	893	133	39	1	1543
	비율	14.8%	16.1%	57.9%	8.6%	2.5%	0.1%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792.455)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의 결혼특성을 살펴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살아있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응답수인 676명 43.8%로 나타났으며, 미혼자가 275명 17.8%, 사별한 경우가 269명 17.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배우자의 상태라고 응답한 수가 1383명 6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별한 경우가 282명 13.8%, 미혼자라는 경우가 204명 1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유배우라는 응답이 801명 42.9%, 미혼자라는 경우가 397명 21.3%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유배우 상태라는 응답이 893명 57.9%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미혼자라는 응답이 248명 1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과 결혼유무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 집단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부랑인 시설의 사별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인 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활동분야에서의 지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의 현재 활동분야에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은 14세 이하이거나 현재 활동분야에 있어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비해당의 경우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1,332명 8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75명 4.9%, 일용근로자라는 응답이 64명 4.1%로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비해당이라는 응답자가 역시 가장 많은 1,546명 75.5%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211명 10.3%, 일용근로자라는 응답이 43명 2.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해당이라는 응답이 1,435명 7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자영업자라는 응답

이 128명 6.9%로 뒤를 이었고 일용근로자라는 응답이 108명 5.8%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역시 비해당이라는 응답이 940명 60.9%로 다수였고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이 13.2%,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11.6%로 뒤를 이었다.

[표 4-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활동분야에서의 지위

구 분		지 위								전 체
		비해당 (14세이하)	자영 업자	고용주	상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시간제)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부랑인 시설	빈도	1332	75	4	27	2	23	64	16	1543
	비율	86.3 %	4.9%	0.3%	1.7%	0.1%	1.5%	4.1%	1.0%	100.0%
노인복 지 시설	빈도	1546	211	12	81	4	43	102	48	2047
	비율	75.5 %	10.3 %	0.6%	4.0%	0.2%	2.1%	5.0%	2.3%	100.0%
정신요 양 시설	빈도	1435	128	9	89	5	48	108	45	1867
	비율	76.9 %	6.9%	0.5%	4.8%	0.3%	2.6%	5.8%	2.4%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940	179	34	204	12	62	82	30	1543
	비율	60.9 %	11.6 %	2.2%	13.2 %	0.8%	4.0%	5.3%	1.9%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425.306)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현재지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지위의 비교를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이 고용주인 경우 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수

[표 4-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수

구 분		장애등급별 장애인수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부랑인 시설	빈도	320	366	418	230	129	80	1543
	비율	20.7%	23.7%	27.1%	14.9%	8.4%	5.2%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260	438	555	323	336	135	2047
	비율	12.7%	21.4%	27.1%	15.8%	16.4%	6.6%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328	450	498	252	206	133	1867
	비율	17.6%	24.1%	26.7%	13.5%	11.0%	7.1%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216	282	342	259	284	160	1543
	비율	14.0%	18.3%	22.2%	16.8%	18.4%	10.4%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84.534)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가 418명 27.1%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등급이 2급인 경우가 366명 23.7%, 1급의 경우가 320명 20.7%로 위의 세 등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가 555명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장애등급이 2급이라는 응답이 438명 21.4%, 5급이라는 응답이 336명 16.4%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역시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가 498명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2급의 경우가 450명 24.1%, 1급이라는 응답이 328명 17.6%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가 342명 22.2%로 가장 높았고, 5급인

경우가 284명 18.4%로 뒤를 이었으며, 2급인 경우가 282명 18.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과 장애등급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랑인 시설의 경우 특징적으로 1급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등급이 다른 집단에 비해 4, 5, 6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가족의 가구원수

[표 4-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구원수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63	1.417	.036	36.638	.000
노인복지시설	2047	3.02	1.370	.030		
정신요양시설	1867	2.98	1.455	.034		
장애인 시설	1543	3.12	1.364	.035		
합 계	7000	2.95	1.413	.01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족의 가구원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가구원수의 평균은 2.63명이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가구원수는 3.02명, 정신요양시설의 가구원수는 2.98명,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구원수는 3.12명으로 대체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편차의 범위가 모든 집단별 구분에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2인~3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도 F값의 크기가 36.638,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은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랑인 시설의 가족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4-10] 각 집단별 가족 내 장애인 수

장애인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1.14	.379	.010	11.161	.000
노인복지시설	2047	1.14	.375	.008		
정신요양시설	1867	1.20	.490	.011		
장애인 시설	1543	1.13	.381	.010		
합 계	7000	1.15	.412	.00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족의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인 가족구성원의 숫자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부랑인 시설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평균 1.14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시설도 이와 같은 평균 1.14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평균 1.20명이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1.13명으로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은 1명 내외의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도 F값의 크기가 11.161,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 결과로 검증되고 있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직업관련 분석결과

[표 4-1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장애인의 직장

구 분		장애인의 직장 현황							전 체
		자영업	일반 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 관련기관	기타	
부랑인 시설	빈 도	95	89	8	5	0	2	12	211
	비 율	45.0%	42.2%	3.8%	2.4%	0.0%	0.9%	5.7%	100.0%
노인복 지 시설	빈 도	271	198	8	1	0	2	21	501
	비 율	54.1%	39.5%	1.6%	0.2%	0.0%	0.4%	4.2%	100.0%
정신요 양 시설	빈 도	183	179	17	17	4	4	30	434
	비 율	42.2%	41.2%	3.9%	3.9%	0.9%	0.9%	6.9%	100.0%
장애 인 시설	빈 도	243	256	47	16	3	13	25	603
	비 율	40.3%	42.5%	7.8%	2.7%	0.5%	2.2%	4.1%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71.295)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장애인의 직장을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부랑인 시설의 경우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인 95명 45.0%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89명 42.2%,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8명 3.8%으로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에 종사중이라는 응답이 271명 54.1%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사업체라는 응답이 198명 29.5%,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종사자라는 응답이 8명 1.6%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역시 자영업 종사자라는 응답이 183명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일반 사업체라는 응답이 179명 41.2%,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종사자라는 응답

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근무중이라는 응답이 각각 17명 3.9%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일반 사업체에 근무중이라는 응답이 256명 42.5%, 자영업에 종사중이라는 응답이 243명 40.3%로 뒤를 이었고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종사자라는 응답이 47명 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과 직장현황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다른 모든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타 집단에 비해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의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현재 장애인의 직장 내 지위

구 분		장애인의 직장 내 지위							전 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노점제외)	자영자2 (노점)	무급가족 종사자	
부랑인 시설	빈도	29	23	64	4	54	21	16	211
	비율	13.7%	10.9%	30.3%	1.9%	25.6%	10.0%	7.6%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85	43	102	12	200	11	48	501
	비율	17.0%	8.6%	20.4%	2.4%	39.9%	2.2%	9.6%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94	48	109	9	111	18	45	434
	비율	21.7%	11.1%	25.1%	2.1%	25.6%	4.1%	10.4%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216	62	82	34	173	6	30	603
	비율	35.8%	10.3%	13.6%	5.6%	28.7%	1.0%	5.0%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73.243)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직장 내 지위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는 응답자가 64명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54명 25.6%,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이 29명 13.7%로 응답률에서 상위권을 나타내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200명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 근로자라는 응답이 102명 20.4%,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이 85명 17.0%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라는 응답자가 111명 25.6%, 일용근로자라는 응답자가 109명 25.1%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이 94명 21.7%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자가 216명 35.8%로 가장 높았으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라는 응답이 173명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일용 근로자라는 응답이 82명 1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과 장애인의 직장 내 지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부랑인 시설의 경우엔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단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4-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211	4.85	1.605	.111	6.172	.000
노인복지시설	501	5.02	1.500	.067		
정신요양시설	434	5.08	1.383	.066		
장애인 시설	603	5.08	1.284	.052		
합 계	1749	5.04	1.414	.03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엔 주 평균 근무시간이 4.85시간을 나타나고 있어 모든 집단들 가운데 가장 적은 근무시간을 나타내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5.02시간,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5.08시간,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5.08시간으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6.172,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월평균 수입은 66.40만원이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83.70만원, 정신요양시설은 82.21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152.2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값 57.454, 유의확률 .000으로 분산분석을 통해서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특징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균 월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랑인 시설의 경우 가장 낮은 월평균 수입을 나타내고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표 4-1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시설	211	66.40	79.600	5.480	57.454	.000
노인복지시설	501	83.70	87.178	3.895		
정신요양시설	434	82.21	80.126	3.846		
장애인시설	603	152.23	149.609	6.093		
합 계	1749	104.87	115.941	2.772		

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가활동 관련 분석결과

[표 4-15]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장애인의 휴일 여가활동 유형

구 분		휴일 여가활동 유형 (1)							
		TV,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미술 등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부랑인 시설	빈도	678	5	1	0	10	46	30	3
	비율	43.9%	0.3%	0.1%	.0%	0.6%	3.0%	1.9%	.2%
노인 복지 시설	빈도	751	13	8	4	51	79	50	9
	비율	36.7%	0.6%	0.4%	0.2%	2.5%	3.9%	2.4%	.4%
정신 요양 시설	빈도	651	29	9	2	77	115	69	9
	비율	34.9%	1.6%	0.5%	0.1%	4.1%	6.2%	3.7%	.5%
장애인 시설	빈도	382	57	18	2	151	110	67	12
	비율	24.8%	3.7%	1.2%	0.1%	9.8%	7.1%	4.3%	.8%

구 분		휴일 여가활동 유형 (2)						전 체
		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사	휴식	사교관련	기타	
부랑인 시설	빈도	1	131	74	454	41	69	1543
	비율	0.1%	8.5%	4.8%	29.4%	2.7%	4.5%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도	6	250	132	491	109	94	2047
	비율	0.3%	12.2%	6.4%	24.0%	5.3%	4.6%	100.0%
정신 요양 시설	빈도	7	235	122	334	99	109	1867
	비율	0.4%	12.6%	6.5%	17.9%	5.3%	5.8%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9	258	80	182	134	81	1543
	비율	0.6%	16.7%	5.2%	11.8%	8.7%	5.2%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663.755) 4셀 7.1%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휴일에 어떠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여가활동 유형은 TV, 비디오 시청이 678명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을 취한다가 454명 29.4%, 종교활동을 한다가 131명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여가활동 유형은 TV, 비디오 시청이 751명 36.7%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휴식을 취한다가 491명 24.0%로 뒤를 이었고 종교 활동을 한다가 250명 12.2%였다. 정신요양시설은 TV, 비디오 시청이 651명 34.9%, 휴식을 취한다가 334명 17.9%, 종교활동을 한다가 235명 1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은 TV, 비디오 시청을 한다가 382명 24.8%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258명 16.7%, 휴식을 취한다는 비율이 182명 1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여가활동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TV, 비디오 시청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특징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다른 집단들과 다르게 휴식보다 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관련 분석결과

[표 4-1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혼인상태

구 분		결혼여부			전 체
		결혼했음	미혼임	기타(미혼모/미혼부)	
부랑인 시설	빈도	215	207	4	426
	비율	50.5%	48.6%	0.9%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329	171	4	504
	비율	65.3%	33.9%	0.8%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229	317	2	548
	비율	41.8%	57.8%	0.4%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255	214	0	469
	비율	54.4%	45.6%	0.0%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65.653) 4셀 33.3%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랑

인 시설의 경우 현재 기혼상태라는 응답이 215명 50.5%로 미혼상태라는 응답인 207명 48.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기혼상태라는 응답이 329명 65.3%로 미혼이라는 응답자 171명 33.9% 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정신요양시설은 기혼상태라는 응답이 229명 41.8%로 다른 집단들의 응답과 다르게 미혼이라는 응답자인 317명 57.8%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기혼상태라는 응답이 255명 54.4%, 미혼이라는 응답이 214명 45.6%로 역시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결혼여부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는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정신요양시설에서만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각 집단별로 구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 4-1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당시 장애보유 여부

구 분		결혼당시 장애보유 여부		전 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장애가 없었음	
부랑인 시설	빈도	77	138	215
	비율	35.8%	64.2%	100.0%
노인복지 시설	빈도	138	191	329
	비율	41.9%	58.1%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114	115	229
	비율	49.8%	50.2%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130	125	255
	비율	51.0%	49.0%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4.341)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2 으로 유의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결혼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결혼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이 77명 35.8%,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자 138명 64.2%로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이 138명 41.9%,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이 191명 58.1% 였으며,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이 114명 49.8%,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이 115명 50.2%로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결혼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130명 51.0%로 장애가 없었다는 응답자 125명 49.0%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결혼당시 장애보유 여부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2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구분에 있어서는 결혼 당시에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결혼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 관련 분석결과

[표 4-1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주된 애로사항

구 분		여성장애인 애로사항 (1)					
		성장과정 중 가족의따돌림	결혼 후 식구들의 학대,차별	교육기회부족	사회화 기회부족	친구등 동료교제 어려움	사회의 편견, 무시, 이중차별
부랑인 시설	빈도	4	18	14	7	21	26
	비율	2.4%	10.8%	8.4%	4.2%	12.7%	15.7%
노인 복지 시설	빈도	6	12	14	15	13	22
	비율	3.4%	6.9%	8.0%	8.6%	7.5%	12.6%
정신 요양 시설	빈도	13	12	17	18	19	30
	비율	6.7%	6.2%	8.8%	9.3%	9.8%	15.5%
장애인 시설	빈도	3	7	9	16	5	19
	비율	1.9%	4.5%	5.8%	10.3%	3.2%	12.3%

구 분		여성장애인 예로사항 (2)					전 체
		취업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임신, 출산 어려움	전문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시간 활용 어려움	기타	
부랑 인 시설	빈도	62	7	2	4	1	166
	비율	37.3%	4.2%	1.2%	2.4%	0.6%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도	61	1	10	14	6	174
	비율	35.1%	.6%	5.7%	8.0%	3.4%	100.0%
정신 요양 시설	빈도	48	6	8	13	10	194
	비율	24.7%	3.1%	4.1%	6.7%	5.2%	100.0%
장애 인 시설	빈도	51	3	15	15	12	155
	비율	32.9%	1.9%	9.7%	9.7%	7.7%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67.039) 4셀 9.1%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예로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하는 여성장애인들은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62명 37.3%로 나타났으며 사회의 편견, 무시, 이중차별이 예로사항이라는 응답이 26명 15.7%, 친구와 같은 동료교제의 어려움이 예로사항이라는 응답이 21명 12.7%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엔 예로사항이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라는 응답이 61명 35.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의 편견, 무시, 이중차별이라는 응답이 22명 12.6%, 사회화 기회부족이라는 응답이 15명 8.6%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예로사항이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48명 24.7%, 사회의 편견, 무시, 이중차별이라는 응답이 30명 15.5%,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9명 9.8%였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예로사항으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1명 32.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의 편견, 무시, 이중차별이라는 응답이 19명 12.3%, 사회화 기회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16명 1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여성장애인의 예로사항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필요서비스

구 분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						
		임신출산 관련교육 및 정보제공	임신출산 육아관련 Hot line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산후조리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	자녀양 육지원
부랑 인 시설	빈 도	10	2	20	16	8	0	34
	비 율	6.0%	1.2%	12.0%	9.6%	4.8%	0.0%	20.5%
노인 복지 시설	빈 도	10	7	17	13	16	0	31
	비 율	5.7%	4.0%	9.8%	7.5%	9.2%	0.0%	17.8%
정신 요양 시설	빈 도	19	3	15	14	9	2	26
	비 율	9.8%	1.5%	7.7%	7.2%	4.6%	1.0%	13.4%
장애 인 시설	빈 도	20	3	17	14	9	0	21
	비 율	12.9%	1.9%	11.0%	9.0%	5.8%	0.0%	13.5%

구 분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전 체
		자녀교육 도우미	가사 도우미	활동보조 도우미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자조집단	기타	
부랑 인 시설	빈 도	8	17	12	15	19	3	2	166
	비 율	4.8%	10.2%	7.2%	9.0%	11.4%	1.8%	1.2%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 도	18	26	11	16	6	3	0	174
	비 율	10.3%	14.9%	6.3%	9.2%	3.4%	1.7%	0.0%	100.0%
정신 요양 시설	빈 도	17	24	10	23	26	6	0	194
	비 율	8.8%	12.4%	5.2%	11.9%	13.4%	3.1%	0.0%	100.0%
장애 인 시설	빈 도	16	20	11	12	9	3	0	155
	비 율	10.3%	12.9%	7.1%	7.7%	5.8%	1.9%	0.0%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54.523) 16셀 28.6% 에서 유의확률 .050 으로 유의 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부랑인 시설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는 응답이 34명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출산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20명 12.0%로 뒤를 이었고, 상담서비스라는 응

답이 19명 11.4%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자녀양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31명 17.8%로 나타났으며, 가사도우미라는 응답이 26명 14.9%, 자녀교육 도우미라는 응답이 18명 10.3%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엔 상담서비스와 자녀양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26명 13.4%로 같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가사도우미라는 응답이 24명 12.4%,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23명 11.9%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이라는 응답이 21명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도우미라는 응답과 임신, 출산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응답이 각각 20명 12.9%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출산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17명 1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5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각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녀양육 지원과 상담서비스, 가사도우미, 자녀교육 도우미와 같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알 수 있다.

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주거관련 분석결과

[표 4-2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

구 분		장애인의 현재 주거상태						전 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기 타	
부랑인 시설	빈도	802	459	66	102	46	29	1504
	비율	53.3%	30.5%	4.4%	6.8%	3.1%	1.9%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도	1010	760	91	112	46	11	2030
	비율	49.8%	37.4%	4.5%	5.5%	2.3%	0.5%	100.0%
정신요양 시설	빈도	932	683	61	70	26	10	1782
	비율	52.3%	38.3%	3.4%	3.9%	1.5%	0.6%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616	708	50	67	36	10	1487
	비율	41.4%	47.6%	3.4%	4.5%	2.4%	0.7%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37.660)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각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를 분석한 결과, 부랑인 시설의 경우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802명 53.3%,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459명 30.5%, 다세대주택이라는 응답이 102명 6.8%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엔 단독주택이라는 응답이 1010명 49.8%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라는 응답이 760명 37.4%, 다세대주택이라는 응답이 112명 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역시 단독주택이라는 응답이 932명 52.3%, 아파트라는 응답이 683명 38.3%, 다세대 주택이라는 응답이 70명 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응답이 708명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이라는 응답이 616명 41.4%였으며 다세대주택이라는 응답이 67명 4.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현재 주거형태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 대한 집단별 비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집단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표 4-2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살고 싶은 주거유형

구 분		앞으로 살고 싶은 주거유형				전 체
		일반주택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	기타	
부랑인 시설	빈도	1386	29	65	24	1504
	비율	92.2%	1.9%	4.3%	1.6%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도	1978	10	20	22	2030
	비율	97.4%	0.5%	1.0%	1.1%	100.0%
정신 요양 시설	빈도	1696	27	47	12	1782
	비율	95.2%	1.5%	2.6%	0.7%	100.0%
장애 인 시설	빈도	1456	21	5	5	1487
	비율	97.9%	1.4%	0.3%	0.3%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08.493)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앞으로 살고 싶은 주거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부랑인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1386명 92.2%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65명 4.3%로 뒤를 이었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29명 1.9%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역시 살고 싶은 주택의 유형은 일반주택이라는 응답이 1978명 97.4%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생활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20명 1.0%, 공동생활가정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10명 0.5%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역시 1696명 9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활시설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47명 2.6%, 공동생활가정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27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일반주택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1456명 97.9%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생활가정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21명 1.4%, 생활시설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5명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앞으로 살고 싶은 주거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경제상태 인식

[표 4-2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주관적 장애인 경제상태 인식

구분		경제상태 인식									전체
		1점 (최하층)	2점 (하층)	3점 (중하층)	4점 (중중상층)	5점 (중상층)	6점 (상류중상층)	7점 (준상류층)	8점 (상류층)	9점 (최상류층)	
부랑인 시설	빈도	712	440	245	81	52	11	2	0	0	1543
	비율	46.1%	28.5%	15.9%	5.2%	3.4%	0.7%	0.1%	0.0%	0.0%	100.0%
노인복 지 시설	빈도	485	623	446	241	213	34	4	1	0	2047
	비율	23.7%	30.4%	21.8%	11.8%	10.4%	1.7%	0.2%	0.0%	0.0%	100.0%
정신요 양 시설	빈도	451	499	394	235	234	45	4	4	1	1867
	비율	24.2%	26.7%	21.1%	12.6%	12.5%	2.4%	0.2%	0.2%	0.1%	100.0%
장애 인 시설	빈도	191	244	304	242	436	101	15	8	2	1543
	비율	12.4%	15.8%	19.7%	15.7%	28.3%	6.5%	1.0%	0.5%	0.1%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1071.759) 8셀 22.2%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가장 최하층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1점부터 최상층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9점 까지의 점수로 자신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은 자신의 경제상태가 최하층인 1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712명 46.1%로 가장 많았으며, 2점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440명 28.5%로 뒤를 이었고 3점 준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245명 15.9%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엔 2점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623명 30.4%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1점 최하층에 해당한다는 응답자가 485명 23.7%로 뒤를 이었고 3점 준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446명 21.8%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제상태 인식은 2점 하층이라는 응답자가 499명 26.7%로 가장 많았으며 1점 최하층이라는 응답자가 451명 24.2%, 3점 준하층이라는 응답자가 394명 21.1%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경제상태 인식은 5점 중산층이라는 응답자가 436명 28.3%로 가장 많았으며 3점 준하층이라는 응답자가 304명 19.7%, 2점 하층이라는 응답자가 244명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경제상태 인식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태 인식에 대한 결과는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랑인 시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경제상태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어서의 경제상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중산층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표 4-2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구 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						
		주거보장	장애예방	보육교육보장	의료보장	이동권보장	고용보장	문화여가, 체육보장
부랑인 시설	빈도	405	58	35	450	40	84	7
	비율	26.2%	3.8%	2.3%	29.2%	2.6%	5.4%	.5%
노인 복지 시설	빈도	316	95	56	745	52	155	26
	비율	15.4%	4.6%	2.7%	36.4%	2.5%	7.6%	1.3%
정신 요양 시설	빈도	278	62	144	494	47	154	39
	비율	14.9%	3.3%	7.7%	26.5%	2.5%	8.2%	2.1%
장애인 시설	빈도	172	69	113	442	33	148	30
	비율	11.1%	4.5%	7.3%	28.6%	2.1%	9.6%	1.9%

구 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2)					전 체
		소득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없음	기타	
부랑인 시설	빈도	363	46	34	16	5	1543
	비율	23.5%	3.0%	2.2%	1.0%	.3%	100.0%
노인 복지 시설	빈도	413	99	53	28	9	2047
	비율	20.2%	4.8%	2.6%	1.4%	.4%	100.0%
정신 요양 시설	빈도	379	140	71	48	11	1867
	비율	20.3%	7.5%	3.8%	2.6%	.6%	100.0%
장애인 시설	빈도	222	136	121	43	14	1543
	비율	14.4%	8.8%	7.8%	2.8%	.9%	100.0%

* 카이검정 결과 : Pearson 카이제곱 (480.218) 0셀 .0% 에서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함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들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은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의료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450명 29.2%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보장으로 요구하는 응답이 405명 26.2%,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363명 23.5%의 순으로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의료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745명 36.4%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보장으로 요구하는 응답이 413명 20.2%, 주거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316명 15.4%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은 의료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494명 26.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379명 20.3%, 주거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278명 14.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의료보장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응답자가 442명 28.6%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222명 14.4%, 주거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172명 11.1%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별 구분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이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소득보장을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랑인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보장을,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제 2 절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도 분석결과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생활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 친구 만족, 살고 있는 집 만족, 건강상태만족, 한달수입 만족, 여가활동 만족,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 결혼생활만족과 전반적인 삶 만족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정성적인 생활만족

장애인들의 생활만족을 주로 감정적, 정서적 만족과 관련되는 정성적으로 측정되는 항목들을 위주로 그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가족 관계 만족도

[표 4-2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3.09	1.443	.176	9.427	.000
노인복지시설	2047	2.61	1.641	.310		
정신요양시설	1867	4.50	.812	.159		
장애인복지시설	1543	3.50	1.437	.196		
합 계	7000	3.35	1.500	.1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가족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 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3.09로 근소한 차이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가족관계 만족도가 2.61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4.50으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3.50으로 가족관계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9.427,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 시설에서만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친구 만족도

[표 4-2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친구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48	1.133	.138	3.862	.010
노인복지시설	2047	2.93	1.386	.262		
정신요양시설	1867	3.42	1.102	.216		
장애인복지시설	1543	2.78	1.313	.179		
합 계	7000	2.78	1.259	.09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친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친구 만족도는 평균 2.48으로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친구 만족도가 2.93으로 근소하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친구 만족도의 평균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78로 친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3.862, 유의확률 .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정신요양 시설에서만 친구에 대한 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살고 있는 집 만족도

[표 4-2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살고 있는 집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10	.855	.104	4.613	.004
노인복지시설	2047	1.68	.905	.171		
정신요양시설	1867	2.50	1.068	.209		
장애인복지시설	1543	2.39	1.017	.138		
합 계	7000	2.18	.977	.07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살고 있는 집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살고 있는 집 만족도는 평균 2.10으로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살고 있는 집 만족도가 1.68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살고 있는 집 만족도의 평균은 2.50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39로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4.613,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건강상태 만족

[표 4-27]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72	1.165	.142	9.856	.000
노인복지시설	2047	3.79	1.197	.226		
정신요양시설	1867	3.85	1.120	.220		
장애인복지시설	1543	2.91	1.137	.155		
합 계	7000	3.11	1.240	.09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건강상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평균 2.72 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건강상태 만족도가 3.79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건강상태 만족도의 평균은 3.85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91로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9.856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만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결혼생활 만족도

[표 4-28]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00	.858	.022	3.328	.021
노인복지시설	2047	.11	.921	.020		
정신요양시설	1867	.38	.818	.019		
장애인복지시설	1543	.00	.936	.024		
합 계	7000	.07	1.062	.0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00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결혼생활 만족도가 .11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결혼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38로 불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00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3.328 유의확률 .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만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전반적인 삶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전반적인 삶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평균 2.60으로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전반적인 삶 만족도가 2.96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의 평균은 3.35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3.07으로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4.208, 유의확률 .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9]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60	.970	.022	4.208	.007
노인복지시설	2047	2.96	1.105	.020		
정신요양시설	1867	3.35	1.056	.019		
장애인복지시설	1543	3.07	1.007	.024		
합 계	7000	2.91	1.044	.013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정량적인 생활만족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장애인들의 생활만족을 주로 경제적 지표와 관련되는 한달 수입, 직장, 여가활동(시간 등) 등과 같은 정량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한달 수입 만족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한달 수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0]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한달 수입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36	.858	.022	6.811	.000
노인복지시설	2047	3.29	.921	.020		
정신요양시설	1867	3.77	.818	.019		
장애인복지시설	1543	2.96	.936	.024		
합 계	7000	2.90	1.062	.013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한달 수입 만족도는 평균 2.36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한달 수입 만족도가 3.29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한달 수입 만족도의 평균은 3.77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96으로 한달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6.811,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만 한달 수입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 직장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분석결과 부랑인 시설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3.82로 3.00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비교적 현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3.54로 현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1]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 직장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시설	211	3.82	.901	.062	353.975	.000
노인복지시설	501	3.54	.910	.041		
정신요양시설	434	2.70	.815	.039		
장애인복지시설	603	2.06	.895	.036		
합 계	1749	2.86	1.117	.027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평균값은 2.70이었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균값이 2.06으로 두 집단 모두 3.0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현 직장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 353.975,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여가활동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2]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여가활동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2.45	.858	.022	8.160	.000
노인복지시설	2047	3.50	.921	.020		
정신요양시설	1867	3.42	.818	.019		
장애인복지시설	1543	2.80	.936	.024		
합 계	7000	2.87	1.062	.013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평균 2.45으로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여가활동 만족도가 3.50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여가활동 만족도의 평균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80으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8.160,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만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분산분석이므로 등간척도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3.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며, 3.00인 경우 보통의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의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

가구원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ANOVA 검증결과	
					F 값	유의확률
부랑인 시설	1543	.16	.858	.022	6.457	.000
노인복지시설	2047	.00	.921	.020		
정신요양시설	1867	.85	.818	.019		
장애인복지시설	1543	.35	.936	.024		
합 계	7000	.30	1.062	.013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는 평균 .16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가 .00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현재하고 있는 일 만족도의 평균은 .85로 불만족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엔 평균값이 2.43으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 F값 6.457,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만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과 각 요인이 거주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 입소이용자를 위한 생활만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관련 요소의 개선과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역할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시설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랑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2.60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 만족, 여가활동 평균 2.45 만족,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평균 2.10 만족, 친구 평균 2.48 만족, 현재하고 있는 일 평균 1.16 불만족, 한 달 수입 평균 2.36 으로 비교적 불만족을 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평균 2.72, 가족관계 평균 3.09 으로 비교적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평균 2.96으로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평균 2.61 불만족, 친구 평균 2.93으로 근소하게 불만족, 현재 살고 있는 집 평균 1.68로 4개의 시설 중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는 평균 3.59로 만족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수입 평균 3.29로 만족, 여가활동은 평균 3.50으로 만족, 현재 하고 있는 일 .00으로 매우 불만족한 결과로 나타났고, 결혼생활 평균 1.11로 불만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3.35로 4개의 시설중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평균 4.50으로 4개의 시설중 가장 높은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평균 3.42 만족, 현재 살고 있는 집 평균 2.50으로 근소한 차이로 만족, 건강상태 평균 3.85로 만족, 한 달 수입 평균 3.77로 만족, 여가활동 평균 3.42로 만족, 현재 일 만

족 평균 .85로 불만족, 결혼생활평균 .38로 불만족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평균3.07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평균 3.50으로 만족, 친구 평균2.78로 불만족 ,현재 살고 있는 집 평균2.39로 불만족 ,건강상태 평균 2.91로 근소한 차이로 불만족, 한 달 수입 평균2.96으로 불만족, 여가활동 평균2.80으로 불만족 , 현재 일 만족 .35 불만족, 결혼생활 평균.00으로 불만족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모두 현재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모두 평균값이하로 불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의 복지시설 유형별로 생활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들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 어떠한 종류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장애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장애인 자립과 재활교육 분야 정책이다.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은 만족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다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보다 가족관계, 친구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결혼생활 만족, 현재 일 만족에선 4곳에 입소한 장애인 모두 평균이하로 매우 불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통합교육을 통한 재활교육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자립정책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이념은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호의 전부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이 자립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최상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자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립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 확보야말로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성취도 증대, 생활 안정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재활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의 장애인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장애인 재활교육을 전담할 교사의 전문성 부족, 장애인이 재활교육을 마치고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한 장애인비율도 50%가 안되는 수준으로 장애인 재활교육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교육은 단기간의 초중고대학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임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과 정부 지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이란, 신체적 기능 상태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원활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재활에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복지부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매칭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자체 또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권역별 재활병원이 제대로 건립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일부 기능을 향후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창욱, 이준우(2006), "청각장애노인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학회지」, 한국언어치료학회, 15(2), pp.13-26.
- 고병기(2006), "중도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충남지역 중도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구본용(2005),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의료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시도(2006),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연경(2008),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관련요인 : 무료시설과 유료시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2007),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2009),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영광군 노인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류용무(2009),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용인시 사례로", 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희자(2009), "노인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레저스포츠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6), "무료요양시설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2007),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용환(2009),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채(2007),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 과천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지혜(2006),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우진(2009), "노인들의 삶의 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은령(2005), "취업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요인 연구", 「직업재활연구」, 직업재활학회, 45(1), pp.43-57.
- 변용만(2007), "요양시설 서비스가 요보호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홍문 (2006),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가 재가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 은(2006),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재(2006),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지역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춘희(2009), "노인전문병원 입원노인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덕만(2006), "유료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니어스타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경(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 ”, 「생활과복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3, pp.113-146.
- 윤기윤(2008),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선이(2003),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삼척시 노인들을대상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2009),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2008), "건강교실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3),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노인의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임은실(2003),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진주(2007),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은아(2009), "농촌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민정(2008), "시장형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수영(2005), "노인의 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가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

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은주(2009), "무료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민(2009),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현승권(2004), "노인의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선애(200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Study on the Patterns of the Elderly Handicappe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on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Yang, Sung Soon

Major in Industry for the elderly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tical proposal and improvement towards enhancing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by subdividing and understanding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who are administrated and living in the elderly handicapped personnel rehabilitation facilit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has divided and analyzed each of the following facilities; facility for the vagrant, elderly rehabilitation facility, facil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handicapped rehabilitation facility. This way, we could further analyze what sort of effect the primary cause of the handicapped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ollowed by these facilities have on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resident handicapp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ly, The handicapped who

were living in the facility for the vagrant were dissatisfied the most among all, especially at the quality of the facility. Secondly, the handicapped who were living in the elderly rehabilitation facility had some dissatisfaction as well. Thirdly, the resident handicapped in the facil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relatively satisfied in general. Lastly,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ose who were in the handicapped rehabilitation facility were the average.

Therefore the results implicates that the unified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must be expanded and executed, hence a change in the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as well as a establishment of agencies, which acts as a control tower to manage all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thus promoting each specialities.

Key Words : Living Satisfaction of the Handicapped,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for the Handicapped, The Primary Cause of the Facility for the Handicapped